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 해야 깨달아진다.
2. 만물도 집중하여 그 형상과 모양을 봐야, 제대로 깨달아진다.
3.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신경 써서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
4. 제대로 깨달아야, 그 근본의 가치를 알게 된다.
5. 사람도, 지구와 천지 만물들도 그 근본을 깨닫고 보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6. 자기 삶 속의 일들을 두고도 ‘왜 그렇게 행했는지’ 근본을 깨닫고 보면, 신비하고 오묘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뜻을 두고 함께 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추가 잠언〉

1.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을 보고 써도 근본을 모른다.
2. 성경도 깨달으려고 하고 전체를 읽어 보면, 신약역사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새 시대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도 깨닫게 된다.
3. 자기 몸의 구조도 자료를 보면서 외적, 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창조 하셨는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쓰면서도 자기 지체의 신비함을 모르고 산다.
4. 깨달으려고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존재도 깨닫게 된다.
5.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 깨달으려고 생각해야, 제대로 깨달아진다.
6.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진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써야 된다.
7. 인생은 깨달으면 승리한다.